학곡2차 모아엘가 비스타 장기일반민간임대 임차인 입주내문

■ 코로나 바이러스19 관련 안내사항
- 견본주택 운영안내
  - 학곡2차 모아엘가 비스타는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(http://학곡2차모아엘가비스타.kr/)와 견본주택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
  - 견본주택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며,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(http://학곡2차모아엘가비스타.kr/)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 (1명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 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,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는 관람을 제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.)
  - 입장 전 사전예약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기록을 위한 QR코드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장 시 사업주체에서 실시계공하는 장치 및 유행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 본인에 한하여 정약 각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목적외 타 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.
  -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  가.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나.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식온도계를 통한 체온이 37.35℃ 넘을 경우
  다.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(열화상카메라, 비접촉온도계, 소독발판, 손소독제 등) 라. 기타 전염의심의 언네에 따르지 않는 경우

■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, 청약 접수, 당첨자 서류접수 계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- 본 입지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수지한 후 공급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아울러 인한 차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급 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.
- 이 주택은 「주택법」, 「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을 모집하는 분기일반인간임대주택(임대의무기간은 입주자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.
-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차인 모집일(2021.12.21)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(국내거소 외국인 신청 불가)만 공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**최초 일반공급 신청 시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은 해당 주택건설업체(초친시) 가주자에게 90% 우선 공급하고, 10%는 천국 지역 가주자에게 공급합니다.**
-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,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00%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.
- 본 아파트의 청약신청(일반공급)은 모아엘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청약신청 시간은 2021.12.22.(수)~2021.12.26(일) 10:00~17:30 외에는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계약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공급신청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견학심당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공급신청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당해 주택의 공급신청자의 경우 등 중소아배정은 입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반드시 입약인 모집안내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라며, 해당 공급 신청일에 경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(주거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입약자모집공고문 확인 시 착오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견학심당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